

2. 8년 후 // 2022. 02. 08.

동창회는 순식간에 잡혔다.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할 여유도 없이, 그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 낼 여유도 없이.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초대된 동창들은 총 다섯 명. 한 명이 빠지면 티가 많이 나는 숫자. 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내 하이힐은 어느새 시끌시끌한 도심의 한 가운데를 마치 한 마리의 백조처럼 거닐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백조의 발들이 온 힘을 다해 물을 내젓듯, 내 마음도 일렁이고 있었다. 약속이 쉽게 잡히는 금요일 밤이었기에 거리의 사람들은形形色색의 옷들을 입고 거리를 쏘다니고 있었다. 높게 치솟은 빌딩들과 아담한 술집들이 사람들을 둘러싼 채로 나에게 약속된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을 터주는 듯했다.

차는 일부러 집의 주차장에 대어 놓고 오는 길이었다. 레스토랑이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으며, 고급 외제차를 보여 질투와 부러움을 사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하고싶지 않았다. 동창회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달까. 그 대신, 무의식중 꾸민 내 모습이, 이 동창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과시하다시피 보여주고 있었다. 요란한 길거리에서도 귀에 간간이 들려올 소리를 머금은 벨벳 하이힐, 그와 대조되는 새하얗고 부드러운 블라우스, 다시 검은색으로 매치되는 H라인 스커트, 아직은 가시지 않은 추위를 감싸줄 고급진 회색의 코트, 마지막으로 하얀 샤넬 가죽 가방과 얼마 전 동창회만을 위해 새로 산 진주 귀걸이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무채색을 받쳐줄 조금은 화려하고 공을 들인 메이크업과 세련되게 펌을 준 머리까지 제법 마음에 들었다. 불이 꺼져 있는 가게의 유리창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눈을 떴을 때 앞을 돌아보니, 약속된 레스토랑이 거리의 끝에 네온사인을 빛내며 자리해 있었다.

조급해 할 것 없다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입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훨씬 밝은 샵드라이에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다. 카펫에 닿는 하이힐의 감촉이 부드러워 긴장이 조금 풀렸다. 프런트의 직원이 친절히 인사를 하곤 예약자명을 물어왔다. 오랜만에 내뱉어보는 8년 전 친구의 이름에 생소함을 느끼곤 직원의 뒤를 따라 꺾이고 꺾이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오랜만에 긴장이란 감정을 느끼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꺼진 화면에 얼굴을 비추곤 직원이 열어주는 미닫이문의 문턱을 넘어섰다.

긴 직사각형 탁상의 다섯 개의 의자 중 네 개는 차 있었다. 들어간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웃는 것을 잊은 채 하나하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8년 전과 변한 것이 없는 동창도 있는 반면, 조금 변했으나 알아볼 수 있는 동창도 있었으며, 8년 전의 느낌만 남아있고 이목구비는 완전히 변한 동창까지도 있었다.

“태은아!”

누군가의 부름에 동창의 얼굴 살펴보기에서 퍼뜩 깨어난 나는 얼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른 사람을 쳐다보았다. 임지유. 얼굴을 보자 이름이 떠올랐다. 화장이 얼굴에 얹어진 것을 빼면 변한

것이 없는 동창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친했던, 아마 단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구였다. 대학이 갈라지며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끊겼었다.

“어, 안녕. 오랜만이다, 다들!”

긴장한 내 몸과 달리 매끄러운 인사가 흘러나왔다. 주위를 얼른 둘러보고는 빈 의자 하나로 다가갔다. 가장 안쪽, 끝의 의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동창회를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자리해 있었다. 그 얼굴을 살면서 다시 마주할 일이 다시 올줄은 몰랐었고, 바라지도 않았었다. 8년 전과 정확히 같은 얼굴을 지닌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그를 이 곳에 나와 함께 초대한 장본인, 정지우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야, 한울, 김태은, 인상 퍼. 8년 전이야, 8년 전. 하하하”

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정지우가 애써 큰 웃음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는 듯했다. 사실상 내가 들어온 후 모두가 울이의 자리 옆이 유일하게 남은 자리인 것을 인지한 이후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가고 있었다. 8년 동안 내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배웠던 난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으나 그동안 그런 것 하나 배우지 못한 듯한 울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옆자리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동창들에게도 인사를 반갑게 건넸다. 실상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제법 친하게 지냈던 다섯이었기에 8년만의 친구들과의 재회는 싫지 않았다.

“태은아, 음식은 미리 시켰어. 괜찮지?”

지우가 이 사태의 책임자로서 다시금 정적을 깨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인 후, 내가 말을 꺼내야 할 차례임을 직감했다.

“어후, 애들아, 왜이렇게 다 긴장했어, 하하, 다 너무 오랜만이다. 다들 뭐하고 살았어 진짜...?!”

내 한 마디에 얼음장같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드는 듯했다.

“뭐하고 살았긴, 대학 졸업하고 부랴부랴 취업하고 그랬지 뭐. 너도 그렇지?”

내 말을 임지우가 받아 대답했다.

“응, 그렇지. 하긴, 스물일곱이면 딱 그럴 나이잖아. 팔 년 전엔 입시로 다들 힘들어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아?”

내 옆 옆, 즉 울이의 옆자리인 이윤재가 조용히 있다 입을 뗐다.

“힘들긴, 임지우 넌 놀거나 했으면서 뭘 힘든 척이야.”

이윤재는 8년 전과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조용히 있다 누군가를 놀리기 일쑤였다. 나와 웃음 코드가 잘 맞다고, 유쾌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였고 내 예상을 깨지 않아 괜히 기분이 따스해지는 듯했다.

“아니, 뭐래. 나 나름 열심히 했어. 너야말로....”

임지유가 발끈하다 이윤재가 유명 대학을 간 것을 떠올린 후 입을 앙다물었다. 이윤재와 정지우, 그리고 이번엔 나까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후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8년만이니 그럴 만하다고 느꼈기에 내가 다시 입을 여려는 순간, 정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어때? 연애해?”

정지우가 말을 끝내자마자 임지유가 팔꿈치로 정지우를 쿡 찔렀다. 정지우는 ‘왜’라는 입모양을 보였다. 임지유는 ‘으이그’라는 듯한 입모양으로 다시 한 번 정지우를 찌르곤 나와 율의 눈치를 살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하는 차례인 것을 암묵적 분위기에서 느낀 나는 대답했다.

“아니,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더라. 그러는 넌? 물어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정지우가 웃음을 흘리곤 말했다.

“아니, 하겠냐. 고등학교 때 그만큼 사귀었으면 이제 철 들어야지, 뭐.”

정지우는 고등학교 시절 인기가 많았던 편이었다. 얼굴이 그닥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특유의 재치에 많은 여자아이들에게 웃음을 무기로 사용했던 편이었다. 키도 백팔십이 넘는 큰 키였기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여자아이들도 꽤 있었다. 일 년에 두 번은 거의 무조건 사귀었으며 많을 땐 서너 번도 너끈히 사귀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나와 임지유가 핀잔을 주었지만 그 때의 정지우는 듣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듯하는 정도였다. 단점이라면 사귀고 난 후에야 여자아이들이 그가 심하게 눈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쉽게 떠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듯했다. 8년간 제일 변한 것은 나인 것 같은 기분에 잠깐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정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아,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임지유 너도 연애 안 하고, 아니 넌 못 하는건가. 이윤재 너도 안 한다고 했었고. 율아, 넌?”

임지유가 눈을 굴렸다. 눈치 좀 챙기라는 말을 하고 싶은 듯했으나, 이젠 포기했다는 듯 팔장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한 율은 아래만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정지우를 직면했다. 그제서야 그의 얼굴이 8년 만에 눈에 훤히 들어왔다. 다시금 심장이 조여왔다. 8년 전과 정확히 같은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은 피부, 날렵한 눈, 좁은 하관과 항상 부러웠던 오뎅한 코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바뀐 점이라면 곧은 직모였던 머리를 부드러운 물결처럼 곱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오해를 받기 쉽상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난 정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지우는 마치 우리의 8년 전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율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연애 안 해. 이런 걸 왜 물어보냐? 우리 다 안 하는거 뻔히 알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흘렀다.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을 느낀 난 얼굴이 달아올랐다. 예전부터 홍조가 심했던 난 얼굴이 달아오르면 친구들이 알아볼 것을 눈치채 입을 열었다.

“그니까, 근데 나 히터 바로 아래 자리라서 좀 건조하고 더운 것 같은데, 히터 좀 줄일까?”

임지유는 그래, 라고 대답하곤 탁상 끝의 리모콘을 집어 들어 히터를 줄였다. 그제서야 외투를 벗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 나는 코트를 벗었다. 꽤 무겁고 긴 코트였기에 무릎에 올려놓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야 했다. 내 대각선 뒤에 옷걸이가 있어 일어나 걸려고 하는 순간, 한올이 일어나 내 코트를 받은 후 옷걸이에 쉽게 걸었다.

“내가 더 가까워.”

“어, 고마워.”

올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내가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드러웠는지, 어색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목각인형같이만 행동하지 말자, 라고 내 자신을 되뇌이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앞을 보니 정지우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우릴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고맙게도, 이번엔 임지유가 정지우가 할 의미심장한 말을 가로챘다.

“음식 언제 나오지? 한 이십 분 전에 주문한 것 같은데.”

임지유는 벨을 다시 눌러 직원을 호출했고, 직원이 미안한 웃음을 만연한 채 문틈 사이로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주문이 누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미안한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내 성격으로 인해 내가 말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을 선호하는 나인데도 말이다. ‘천천히 해달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일종의 고치지 못한 습관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순간, 올이 날 향해 고개를 돌리는 탓에 문쪽을 보고 있는 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정말 오랜만에 할 말을 잃었다. 미소를 짓는 것 또한 까먹고 말았다. 입을 벌린 것도, 닫은 것도 아닌 채 올의 눈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은 올이었다. 짧은 한숨이 내 입을 거쳐 나갔다. 심장이 조여오며 심장이 미친듯이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엔 임지유마저 이상한 낄새를 눈치챈 듯 미소를 지어왔다. 그 때, 내 옆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려왔다. 올이의 것이었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화면의 수신자를 확인한 후 올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난 보면 안될 수신자를 보았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았다. ‘여자친구’, 그 네 글자가 내 시야로 들어온 것이다. 이번에도 관리를 하지 못한 내 입꼬리는 굳고 말았다. 올이 자리를 뜨자 임지유가 등받이에 기대 있던 등을 떼 내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다.

“태은아, 재, 여친이지.”

8년전과 같이 눈치가 빨랐다. 내 얼굴 근육 하나 놓치지 않는 임지유를 향해 쓴웃음밖엔 나오지 않았다.

“어? 어. 왜?”

태연한 척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대답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정지우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왔다.

“미친. 재는 왜 없는 여친한테서 전화가 오냐. 어이없네.”

이윤재 역시 입을 열만한 상황이었다.

“기만자 새끼. 뻔하긴 뭐가 뻔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댄 후 나왔다. 복도의 끝에 율이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응, 동창회....”

그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 역시 복도 끝이었기에 그를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전화 소리는 더 또렷이 들렸다. 카펫 덕분에 내 하이힐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 감사했다.

“응, 지금 잘 거야? ... 난 좀 뒤에 집 들어갈 것 같아. 응? 그 다섯 명 있잖아. 고등학교 때... 응. 개 있어. 응, 걱정하지 마. 친구야. 어? 당연히 지금은 너...”

그 순간 전화가 끊겼는지 율이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었다. 내가 다가온 것을 눈치챘는지, 율이 뒤를 돌아보았다. 난 미소만을 짓고는 코너를 돌아 화장실로 향하려 했다.

“태은아.”

그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것이 8년만이었기에, 난 놀라며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놀란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다시금 조여왔다. 하루에도 이렇게 심장이 많이 조여오면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그 이상의 설명이나 변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더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율의 옷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검정 슬랙스와 목폴라, 그리고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옷 입는 스타일 역시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자 웃음이 번졌다. 내 웃음을 본 율이는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곧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율이 다운 인사였다.

“응, 8년만이니까. 잘 지냈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네게 될 줄은 몰랐으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형식적인 것들뿐이었다.

“나야.... 응. 너는?”

“나도지, 뭐. 들어가 봐, 화장실 갔다 바로 들어갈 거야.”

그 이상은 정적이 흐를 것 같아 대화를 끊은 후 미소를 지었다. 율이 역시 잠시 미소를 지었다. 뒤돌아 화장실에 가 마주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달아올라 있었다. 숨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으나 한편으로는 내 진심을 마주한 듯했다. 난 8년간 율이를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던 듯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음식이 나와 있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피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임지유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본 임지유는 활짝 웃더니 얼른 들어오라는 듯 손짓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다시 모였는데 사진 한 장 안 찍었네. 같이 사진 찍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선 후 임지유의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다. 바쁜 직장인들이 될 친구들이 언제 다시 이렇게 모여 사진을 찍을지 생각이 드니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자리에 앉은 나의 시선은 율이만을 향했다.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은 후 심기가 불편한 것인지, 나와 대화 때문에 마음이 일렁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후자이기를 바랐던 나인 것 같았다.

우리는 말 없이 20분 늦게 나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좋았기에, 임지유를 보고 말없이 잘 주문했다는 신호를 눈으로 보냈다. 임지유 역시 포크를 쥔 손으로 엄지를 치켜올렸다. 학창시절부터 먹을 때만은 말이 없었던 터라, 약 20분간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점점 풀어지는 분위기가 몸에 닿을 정도로 느껴졌기에 올 때의 긴장감은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식사를 마친 후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아홉 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걸어온 나였기에 들어가 봐야 했다. 각자 차를 타고 온 탓에 와인은 주문하지 않은 상태였다. 설령 마시자는 제안이 나온다고 해도, 마실 생각은 없었다. 취기가 불러올 참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미 감정은 심하게 건드려진 채인 듯했고, 알코올은 옛 기억과 함께 옛 감정들까지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안전한 길을 언제나 택하는 나로써는 안 마시는 것이 최우선일 듯했다. 각자의 집이 멀었기에, 와인을 마시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지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술을 즐기지 않기도 했다. 율이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말이다.

“다들 몇시 즈음에 갈 거야?”

술술 정리하는 듯하자 임지유가 물어 왔다.

“난 걸어 와서, 11시 전엔 가려고.”

내가 대답했다.

“걸어 왔어? 집 많이 가까운가 봐?”

갑작스럽게 율이가 물었다. 그제서야 난 율이가 말을 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람을 깨달았다.

“아, 응. 한 8분에서 10분만 걸으면 나와. 여기서 보이는 아파트일걸...?”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는 내가 한심했으나 말실수만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난 차 끌고 와서. 김태은 그때 가면 다 그때 가든지 하지 뭐.”

이윤재가 제안했다. 모두들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는 눈빛을 보내왔다. 11시까지는 한시간 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 때, 내 주머니에서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려

왔다. 그러자 율이 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수신자를 대놓고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으나 손을 내밀어 휴대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신호했다.

“곰돌이한테서 전화왔네.”

율이가 잠시 당황한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읽으며 건넸다. 맞은편의 임지유와 정지우가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이윤재 역시 눈썹을 들어올리며 날 쳐다보았다. 난 아무 말 없이 언짢게 웃으며 전화기를 낚아채 밖으로 나왔다.

“여보세요.”

“어, 지금 뭐해?”

“나 동창회 왔어. 그 고등학생 때 애들 만나는 중.”

“아 그래? 나도 시내 나와있는데 언제 집가? 너 차 안 들고갔던데. 집까지 태워줄까?”

“아니, 괜찮아.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언제?”

“11시 즈음.”

“아, 알겠어. 집에서 보자.”

“응. 집에서 봐.”

룸메이트 김예린이었다. 같은 대학 졸업 후 직장도 꽤나 비슷한 위치에 있었으며 혼자 살기는 적적할 것 같아, 기숙사를 같이 썼던 것처럼 방을 같이 쓰기로 결정한 터였다. 그러나 일주일 뒤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함께 집을 쓰는 마지막 일주일이었다. 김예린의 부모님이 집을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던 듯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어느새 걸어와 있는 곳은 방금 율이가 전화를 하던 곳이었다. 어이없음에 살짝 웃고 보니 아까 전의 일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다. 곰돌이는 내가 율이를 저장했던 이름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 술김에 김예린을 곰돌이로 저장한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마치 율이에게서 전화가 오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워져 화장실을 들르기로 했다. 그러나 뒤로 돌아마자 마주한 얼굴은 율이었다.

“어, 율아....”

내뱉고 난 후 후회한 한 마디였다. 그 한 마디가 율의 얼굴과 내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다. 성을 떴고 부른 그 한 마디가, 내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와 버렸다. 8년 전 내가 그를 부르던 그 말투 그대로 내뱉고 말았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율의 얼굴에서도 너무 정렬하게 드러나 나 역시 할 말을 잃었다.

“뭐...해?”

겨우 꺼낸 말은 고작 그것이었다. 내가 뱉어 놓고도 이상함을 느꼈으나 말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어?”

처음으로 율이 대답하지 못했다.

“화장실, 저 쪽인데.”

어설픈 손짓으로 코너를 가리켰다. 율이는 내 손 끝을 바라보곤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곰돌이, 뭐야?”

내가 지나쳐 가려 하자 율이가 물어 왔다. 당혹스러웠다. 이토록 아무 전주 없이 이야기할 줄은 몰랐었다. 심지어 넘어갈 줄 알았으나, 이걸 되물어 오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느껴졌다. 땅이 울렁이는 것 같았다. 또다시 입을 반쯤 벌린 그 표정으로 율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필 이때 김예린에게 전화가 온 것에 대해 어느새 김예린을 탓하고 있었다.

“그.... 친구.”

사실이었으며, 그 이상은 덧붙일 생각이 없었다.

“태은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챈 율이 타이르듯 내 이름을 불렀다.

“어...? 진짜 친구야. 왜....”

쓸모없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극도로 당황했다는 뜻이었다.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러나 한 편으론 뜨고 싶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면 안돼?”

도화선이었다. 율이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관계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기는 싫었다. 불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기분이었다.

“무슨, 얘기?”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나도 모르겠어. 얘기 좀 하자. 응?”

율 자신도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말투에 나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적 갈등이 극에 치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응, 이라는 말을 흘리고 말았으며 우리는 어느새 레스토랑 앞의 벤치에 서늘한 밤공기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사실 그것은 이미 명확했다.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만, 다만 우리 둘 중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할 뿐이었다. 결국 말을 꺼낸 것은 율이었다.

“태은아,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아까도 이 말 하긴 했는데, 그래.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래.”

“응,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머리 펴한 것만 빼고.”

율이가 가볍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의 미소였다.

“얼마 전에 했어. 동창회 한다 해서.”

“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으나 알 수 없었다.

“넌 많이 변했네. 몇 개만 빼고.”

썩썩한 웃음을 같이 보내오며 율이는 날 쳐다보았다.

“응, 변하게 되더라. 나도 변하기 싫었는데.”

내 입가에도 썩썩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다 그렇지 뭐.”

율의 말에 이어 긴 정적이 흘렀다. 가을 밤의 상쾌한 공기가 볼에 와닿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 둘 모두 8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율아.”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고, 율이는 날 바라보았다. 다시금 보니 눈빛 또한 조금 변한 듯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때와 성인인 현재를 비교하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겠지만 율이는 그때부터 제법 성숙한 사람이었다. 나의 열일곱 한여름에 만난 율이는 한때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율이 역시 그렇게 느꼈을 것이리라. 너무 빠르게 타면 빠르게 식는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우리였고, 그 말이 진짜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너무 빠르게 타지 않았더라면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었을지, 과거에 ‘만약’은 없기에 모르는 것이다. 그 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였고 그에 대한 후회는 남지 않았다.

난 지난 8년간 내 자신을 바꾸려고 원래의 자신을 부수고 갈았다. 예전의 내가 조그만치도 남지 않도록, 내 말투, 행동, 생각 방식까지 모두 바꾸려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에 맞춰진 인재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조곤조곤한 말투, 빠른 일 처리, 쉽사리 화내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함 성격, 당황하지 않으며 임기응변에 능수능란한 웅변가. 내 자신을 잃는 중이라는 점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내 자신을 깎는 데에만 열중했고 결국 다 바뀌고 나서야 너무 많이 바꾸었던 후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후회를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에는 늦어 있었다. 바뀌기 전의 내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후로 한동안 공부도,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전의 내가 어떠했나, 그 하나만을 찾으려 몇 년 전의 사진, 비디오, 심지어 당시의 전화번호 목록과 전화 기록까지 뒤져 가며 찾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현재의 나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은 채 현실을 살아갔다. 과거에 ‘만약’은 없다고, 그리고 그 뜻은 현재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매일 아침 되뇌어야 했다.

이 바뀐 모습이 율이에게 전해지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율이는 이미 알아챈 듯했다. 변했다고 말한 것부터 불안감이 급습해 왔으며, 급기야 내 쌓아올렸던 임기응변 실력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그 후부터 난 감정 제어 밸브를 잃어버린 듯 말을 쏟아냈다.

“팔년 전.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지? 알아. 딱 오년 전 이맘때에 우리 서로 각자 길 가자며 떠났잖아...?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없고, 서로 일상 살아가는 부자연스러움 정도로 깔끔한 이별이었지. 근데 율아, 그때 연락 안 하고, 잡지도 않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련이, 그게 팔년째, 그니까 지금까지 있어. 이게 원래 그런거야? 나 잘 모르겠어.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나 원래 정지우처럼

살았어. 질리면 갈아타고, 질리면 갈아타고. 남자에 목말라서 하루하루를 살았어. 근데 넌.... 넌 달랐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내 투정, 성격 다 받아주면서 나를 사랑해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한 순간에 떠나보내? 넌 그게 돼서 지금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나 본데, 난 너 때문에 오년째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태은아-”

“끊지 말고 들어.”

“태은아.”

“끊지 말라니까?!”

거의 소리지르다시피 말한 나를 보며 율이 방긋 웃었다.

“옛날 김태은이네, 이제.”

끊지 않고 말을 하던 내 자신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목 가득 찬 기운이 스며들어오자 내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 것이 느껴졌다.

“미안.”

고개를 숙이며 내가 말했다. 율이의 손이 등에 얹어져 온기가 전해져 왔다.

“태은아. 미안해. 그때 우리 둘다 부족했잖아. 당연히 지금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오래 끌어질 관계일줄은 몰랐어. 우리 관계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을 몰랐어. 사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 정지우, 개가 다시 불러모았는데 나 안 나오려고 했어, 처음에. 너 만나서 괜히 너 나쁜 기억 꺼내기도 싫고, 안그래도 계속 생각나는데 너 보면 흔들릴까 봐. 너도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잖아. 나 이러면 쓰레기야, 진짜.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는데, 너 놔두고 가기가 싫다?”

율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우리 왜 이러지.... 오년이면 충분히 잊고도 남을 시간인데, 안 그래?”

다시 평정심을 되찾은 내가 겨우 건넌 말이었다.

“시간이 항상 답은 아닌 것 같네. 미안해 태은아.”

그 말을 끝으로 율이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싼 후 입을 맞추었다. 너무나 오랜만의 감촉이었다. 생소하면서도, 익숙하고, 아련하면서도 행복했다. 부드러운 입술이 맞닿은 순간은 마치 열일곱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흐를 줄 알았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어쩌면 레스토랑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입에서 짠 맛이 느껴졌다. 내 볼에도 따스한 물이 닿았으나 나는 울고 있지 않았다. 율이었다. 잠시 뒤 율이 천천히 입을 떼었다.

“율아, 우리 어떡-”

내 말이 끝나기 전, 율이 한 번 더 입을 맞춰왔다. 저항할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난 오랜만에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율의 손이 떨리는 것도 그제서야 눈치채었으며, 내 눈꺼풀 또한 미세히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내 손을 율의 손 위에 포갠다. 내 손이

울의 손보다 차갑고, 그의 손이 내 손보다 따스하다는 것, 울의 입술이 거칠던 예전과는 달리
립밤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웠다는 것, 그 외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
이것이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임을 한꺼번에 느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을지도 몰랐다. 울의 여자친구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울이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다시 만난다 해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확실한 것이 없는
관계란 불안정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불안정한 것에 기대고 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지도
몰랐다.

8년은, 생각만큼 긴 시간이 아니었던 듯했다.